

지역 가치 제고를 위한 대학의 역할: 지역별 RISE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이수연 인천테크노파크 RISE센터 과장(E-mail: yisuyeon@gmail.com)

국문초록

본 연구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이 대학-지역 협력을 통해 지역 가치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지역대학이 다양한 지역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 있어 능동적 행위자로 기능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지역의 RISE 기본계획에 제시된 추진전략을 분석하여, 대학-지역 협력을 통한 지역현안 해결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RISE 참여 지역들은 자기 지역의 현안을 명확히 인식하고 지역 특화형 사업 기획·실행을 통해 지역 가치 제고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학은 기존에 해결되지 못한 지역 현안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행위자로서 기능할 수 있음이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는 국가 단위의 발전전략 및 정책 변화와 지역 단위 실행전략 간의 연계 메커니즘까지는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후속 연구에서는 국가 정책 방향과 지역 실행전략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RISE 사업의 장기적 함의를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지역가치, 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대학-지역 협력, 지역발전

The Role of Universities in Enhancing Regional Value: An Analysis of Regional RISE Master Plans

Lee, Suyeon

Manager, RISE Center, Incheon Technopark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 initiative enhances regional value through collabora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local communities. This study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local universities play an active role in addressing diverse regional needs and responding to local challenges. It reviews RISE implementation strategies presented in the basic plans of 17 regions across Korea, focusing on approaches to addressing regional issues and promoting social development through university–region cooperation. By analyzing these regional strategies, this study investigates how RISE can serve as a foundation for creating regional value beyond the conventional goals of region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regions participating in the RISE initiative demonstrate a clear understanding of their local challenges and seek to enhance their regional value through region–specific project planning and implementation. Moreover, universities can play a leading role in addressing unresolved regional issues and supporting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Despite these contributions, this study does not fully consider the broader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or regional response mechanisms associated with evolving policy frameworks. Future research should examine the interactions between national policy directions and regional implementation strategies to better understand the long-term implications of the RISE initiatives.

Keywords : regional value, universities,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 university–region collaboration, regional development

I. 서론

1. 연구배경

대한민국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대학의 목적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다(대한민국 고등교육법 제28조). 이처럼 대학은 지적 자원을 보유한 고등 교육 기관으로, 교육과 연구개발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지식을 확산시키는 공적 역할을 중심으로 국가와 지역의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주도적 위치에 있다. 대학은 지역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인재 육성, 학문의 발전,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의 진보를 만들어내며 학문의 질적 성장 및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특히 대학은 지역의 산업 정체성을 결정하는 주요 행위자이자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혁신 주체이기도 하다.

그간 대학은 인재 육성-기술 개발-산업 발전이라는 구조의 주요 행위자로 지역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 등으로 대표되는 대학의 역할은 경제·산업적 관점에서 중요시되어왔으며,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역시 이러한 기조에서 추진되어왔다. 그러나 이에 비해 대학의 지역에 대한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이는 인재 육성과 학문적 성취 등, 지역 산업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대학이 제공하는 역할이 강조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은 이제 역할의 재정의를 이에 따른 확장을 요구받고 있다. 이는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지역과 대학이 맞닥뜨리게 된 공통 위기에서 기인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산업 경쟁력 쇠퇴에 따른 지역 위기가 자연스럽게 대학의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대학은 이제 이러한 지역 위기에 지역과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위기 해결의 시작은 지역이다. 대학은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대학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기존 대학의 역할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인재 공급과 기술혁신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지역의 혁신 주체로서 지역의 문제발굴과 해결, 나아가 지역 가치 제고를 통해 지역사회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역할이 재정의를 것이다.

지역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을 추동한다는 국가 발전 구조의 원류를 볼 때, 지역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중앙정부 역시 대학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이 대학을 키우며 지역과 대학이 공동 발전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지역 성장의 핵심이라고 언급하고

있다(교육부 2025). 중앙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 난제 해결에 있어 지역과 대학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공존하며 발전하는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과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대학이 직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구조화된 지역문제 해결에 있어 인·물적 자원과 촘촘한 산학연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 지역의 주요 행위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학이 지역에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대학과 지역의 새로운 공생을 위해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와 깊은 관련이 있다. 연구자는 지역과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는 대학의 협력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을 넘어 지역사회 현안 해결과 지역사회 지속 발전을 지향하는 새로운 모델로써 RISE가 가지는 의미를 통해 대학의 역할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RISE 기본계획을 수집하여 대학과 지역이 구상한 지역문제 및 현안 해결전략 등을 검토하고 RISE체계를 통해 대학이 지역사회 가치 제고에 있어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그 결과, RISE를 추진 중인 충남, 세종, 울산,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전남, 충북, 제주, 전북,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인천 등 지역에서 대학들이 지역 현안 해결- 원도심 활성화, 스마트시티, 지역개발 등 지역별 특화 프로젝트 기획을 통해 지역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의 새로운 사회적 책무와도 연관되는 것으로, 중앙과 지역이 해결하지 못했던 지역의 현안 해결과 미래 비전 설계에 대학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학의 참여를 통해 대학이 지역 산업 성장을 넘어 지역사회의 가치와 제고에도 일조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은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를 기반으로 한다.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는 참여정부 시절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념으로 소개되었으며, 정책적 성과로는 지역 대학의 인재양성 사업, 혁신도시 건설, 지역 전략산업 육성 등이 있다. 지역혁신체계는 혁신의 공간적 범위를 국가가 아닌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목표는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학습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그것을 확산시켜 응용,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혁신 역량을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데 있다. 즉, 지역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들 간의 관계와 지역 내·외부 환경과 조응하여 구축되는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국 지역혁신체계의 성공 요인은 구성원들 간 소통과 신뢰, 연결망의 공고함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문경희 2021, 67-69).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시작된 지역혁신체계는 정부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되며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중앙정부 일변도의 운영과 예산 투입 과정에서 지역 대학의 역량을 제대로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역 참여에 있어 지역과 대학 간 호흡이 부족했기에 지역과 대학의 공동 발전을 위한 구상이 미진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개선을 거듭해 온 지역혁신체계는 RISE에 이르러 지역혁신의 관점에서 대학의 사회 기여에 대한 역할에 대해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중앙 역시 중앙이 아닌 지역과 대학의 관계 재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RISE의 구조와 철학이 대학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이를 문헌분석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대학의 사회적 가치 발굴과 책무에 대해 분석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기존 대학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논의가 어디까지 연구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학과 지역의 공동 성장과 발전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추진 중인 RISE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어떠한 측면에서 RISE가 지역적 가치를 발굴하고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는 토대가 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기존 대학 재정지원사업과는 달리 RISE는 특정 분야에 집중된 사업이 아닌 대학과 지역의 자율성을 전제로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새로운 지향점을 찾는 일종의 체계로, 이 체계에 의해 지역과 대학은 지역의 특성과 대학의 특·장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에서 작성된 전국 17개 지역의 RISE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지역별로 대학을 통해 지역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지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학의 네트워크와 역할이 더욱 활발히 사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3. 선행 연구

우선 국내 논문을 중심으로 대학의 전통적인 역할인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지식의 축적 및 확산을 넘어 대학이 지역과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분석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김현영(2025, 54-57)은 대학의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을 강조하며 대학은 지식 생산과 전수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시민 사회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가치 창출의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지학협력(地學協力)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는데, 지학협력은 대학의 자원을 지역에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사회 문제 발굴과 해결에 대학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모델이며,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주요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협업 주체 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대학이 조정자(Facilitator) 역할을 해야 하며, 장기적 지역 전략과 연계된 지역 사업을 통해 사회에 대한 기여도 제고와 지역 공동체의 변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혜선 외(2025,

63-65)는 일본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일본 돗토리현(鳥取県) 지역 대학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돗토리현은 저출산, 고령화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돗토리 간호대학(鳥取看護大学), 돗토리 단기대학(鳥取短期大学), 돗토리현(鳥取県), 쿠라요시시(倉吉市) 등 지자체와 고등교육기관, 지역 내 경제·의료·복지 단체를 연결하여 돗토리 간호대학-돗토리 단기대학과 지역의 발전을 추진하는 모임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의 교원·학생·지역 시민이 참여하는 ‘거리의 보건실’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건강 측정이나 개별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출전형’ 지역 보건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사업들이 지역대학 커리큘럼에 정식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교수진들과 함께 전공 지식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참여형, 실습형 사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역 대학 학생 및 교수진들이 지역민과 소통하면서 지역문제를 참여형으로 해결하는 지역의 플랫폼으로 성장하며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김창환(2020, 26)은 대학의 사회적 책임(University Social Responsibility, USR)에 대한 원류를 연구하였다. 김창환은 대학은 모든 국가의 중요한 기관이자 인류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대학, 기업, 정부 및 시민 사회 간의 협력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협력과 공존이 필요한 시기에 대학은 사회가 보유한 자원이자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주체이기 때문에, 대학의 역량을 교육과 연구에서 교육과 연구, 사회 공헌으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영미(2021, 3054)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여와 사회적 가치 창출이며, 여기서 사회적 가치는 경제, 사회 환경 등 분야를 넘어 미래 세대를 포함한 공동체까지 포함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배진형·안정선(2024, 296-299)은 대학은 지역사회의 이슈나 사안들을 경청해야 하며, 지역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동인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지역사회의 난제와 요구들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을 통해 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해야 하며, 대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사회구성원을 포용하고 공동체의 합의와 연대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은 199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대학의 사회 공헌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학 리더십의 표현이자 대학에 적용되는 윤리와 책임, 지역 협력과 관련이 있다. 1990년 탈루와르 선언(Talloires Declaration: University President for a Sustainable Future), 1994년 코페르니쿠스 헌장(Copernicus- The University Char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998년 UNESCO 세계고등교육회의(World Conference on Higher Education) 등을 거치며 대학은 교육과 인재 양성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 환경, 사회, 불평등, 빈곤, 인류의 미래 등 사회적 이슈에 있어 대학의 기능에 대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보이어(Boyer)는 1996년에 지역사회와의 쌍방향 파트너십에

기반한 소통 방식에 파생된 지역협력 대학(Engaged University)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며 대학은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지역협력의 학문적 실천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창환 2020, 32-35).

이처럼 많은 연구자들이 지역에서 대학의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다수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대학이 교육과 연구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층위에 접근하여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 주민의 삶을 제고해야 한다는 연구자의 문제의식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상기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서 대학이 가지는 역할을 재정 의하면서 지역문제 발굴과 해결에 있어 RISE가 대학의 방향을 추동할 수 있음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RISE의 비전인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넘어 대학이 지역사회에 내재된 문제의 해결자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리고 대학이 장기간 축적한 지식과 역량, 자산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대학이 지역의 지속 성장과 발전에 지역 대학-지역 주민-기업이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II. RISE 체계 검토

1. 지역혁신체계로서의 RISE

국가는 공공성의 측면에서 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1995년 교육개혁 이후 시작된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질적·양적 성장을 견인해 왔다. 이후 정권의 변천에 따라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었고 현재까지 운용 중이다.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참여정부 시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며 지방대학 발전 및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되기 시작하였고, 지역과 지역 대학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역발전정책과 대학 정책이 연계되며 지역 특성화 전략을 통해 대학 재정지원이 확대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본격적인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따라 대학의 자율 혁신 지원과 지방대학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 사업을 통해 대학과 지역의 연계 협력 전략을 고도화하고자 하였다.

참여정부 시절 소개되어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으로 활용된 지역혁신체계는 정부에 따라 변화하며 일정 부분의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부처 간 분절적 사업 추진과 중앙정부 중심 운영, 형식적인 자산화

협의체 네트워크 구성으로 인해 개편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2019년에 이르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의 주도적 참여를 문제 개선책으로 제시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과 중앙-지방 간 교류 확대, 지역 대학을 활용한 지역-대학 혁신모델 개발을 개선안으로 수립하였다. 특히 대학의 역할에 주목하여 대학을 지역혁신체계의 핵심 주체로 상정하고, 교육과 연구개발, 지산학 중심을 넘어 대학이 지식의 확산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문경희 2021, 70-73).

이처럼 대학과 지역은 별개의 사업 추진 대상이었으나 정책 수립의 원류에 있어서 깊이 연계되어 있다. 다만 복잡해지는 지역의 내·외부 요인으로 인한 지역 생존 위기에 있어 지역과 대학의 관계 재설정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인한 지역 중심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진화는 경제성장 둔화, 지역산업 저발전, 지역 인구감소 및 수도권 집중 현상 등으로 지역과 지역 대학의 입지가 위태로운 지금의 현실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지역 소멸, 지역 위기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혁신 정책의 주체로 대학을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202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RISE를 추진하고 있다. RISE는 지역 대학의 책임과 지역과의 협력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으며, RISE가 기존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지역 혁신 주체 간 협력을 강조하는 체계(System)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부분은 RISE가 지역혁신체계(RIS)의 명맥을 잇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과 대학의 공동 발전을 위해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는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여 인재 육성, 혁신 역량 제고, 정주 인프라 개선 등을 목표로 지역발전을 위한 고유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는 지역 활력 회복의 출발점을 대학으로 보고, 대학 지원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여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모델을 그리고 있다. 대학이 살리는 지역, 지역이 키우는 대학을 기치로 이재명 정부 공약 중 하나인 지역혁신·성장의 중심의 RISE 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추동하겠다는 전략이다. 즉, RISE 체계는 지방분권식, 상향식 구조를 중심으로 대학 재정지원사업 통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혁신과 연계한 사업체계이자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는 RISE의 4대 성과 목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둘째, 지·산·학·연 협력 셋째, 혁신적 직업·평생교육 넷째, 지역 현안 해결이 그것이다(교육부 2025). 이처럼 RISE의 성과 목표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기업과의 성장 및 지역 연구역량 제고, 지역 주민 역량 강화, 지역 난제 해결 등 지역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대학과 ‘지역을 직시하는’ 구상으로 만들어져 있다.

대학만의 성장이 아닌 지역과 대학의 공동 성장에 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명제는 그간 대학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의 핵심에서 관찰자 역할에 그쳤다는 점을 극복한다는 취지에서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대학은 순수 학문 탐구를 핵심 기능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오랫동안 지역의 위상을 유지해 왔다. 1980년대 이후 대학이 양성한 고급 인력이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하면서 대학은 산학협력 주체로서의 기능을 확장하였다. 이 같은 대학의 기능 변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나, 지역사회적 맥락이 배제되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었다(김은정 외 2020, 2).

그러나 지역혁신체계에서 대학은 지역혁신의 앵커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지역에 기반을 둔 혁신체계 간 상호작용과 상호학습을 강조하는 지역혁신체계에서 대학은 지식의 생산과 전파, 공유, 활용, 가치 창출 등 대학의 고유 기능을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다(이슬기 2023, 365).

RISE는 대학의 양적·질적 성장을 뒷받침해 온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혁신체계의 명맥을 잇는 새로운 대학-지역 간 협력체계로서 지역과 대학이 구상하는 사회적 가치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대학의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무와 관련, 지역사회를 위한 대학의 구상을 분석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현안 해결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향후 방향성을 조망하고자 한다. 지역별 RISE기본계획(5개년 계획)은 지역별 RISE 비전, 전략, 성과 목표, 프로젝트, 세부과제로 구성된 기본계획으로, 지역-대학 간 협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발전 전략과 대학의 혁신을 설계하고 있다. 특히 기본계획 내 지역 현안 해결 부분에서 각 지자체들의 구상과 대학의 역할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지역별 RISE 기본계획

1) 전라남도 - 지역과 대학이 주도하는 GRAND 전남 혁신성장 실현

전라남도는 RISE 기본계획에 6개 핵심 목표와 4대 전략을 수립하였다. 세부 계획 중 지역 현안 및 지역사회 발전 관련 내용으로는 프로젝트 5번인 ‘역동적 대학-지역 동반성장(Dynamic University-Regional Co-Growth)’을 기반으로 전남 동반성장 프로젝트와 시·군 동반성장 사업을 구상하였다. 대학이 보유한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경제·사회·산업·환경·일자리 등 지역 현안 전반에 대한 공동 해결과 대학이 없는 시·군의 지산학 협력체계 구축 및 시·군 주민이 참여하는 리빙랩 기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제시하고 있다.

전남은 지역 자체 현황 진단에서 지역의 위협(Threat) 요인을 첫째, 학령인구 및 신입생 감소, 지역 소멸 가속화에 따른 지역대학 존폐 위기 둘째, 일자리 부족에 따른 인재 유출 셋째, 제조업 근무 기피 넷째, 글로벌 산업·기술 패러다임 대응 역량 및 첨단산업 기반 취약으로 보았다. 이러한 지역사회 위협 요인 감소를 위해 제시된 동반성장 프로젝트는 전라남도과 22개 시·군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기초지자체-대학 간 협의체 운영, I(Issue)-솔루션 बैं크 운영, 리빙랩 기반 기술 개발 및 환경개선, 현안 해결 솔루션 개발, 지역 주민 대상 교육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대학 프로젝트로는 일반/전문대로

구분하여 대학의 역량을 기반으로 한 지역 소멸 위기 공동 대응,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 등이 있다. 전남의 이러한 시도는 전남 소재 대학의 지역 혁신 역량과 관련 있다고 보인다. 전남 지역 대학들은 최근 2년간 인재 양성, 산학협력, 지역혁신, 연구지원 분야의 사업 건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학들은 보건·의료·문화·예술 분야를 특성화 및 강점 분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이는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2021~2040) 중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및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및 경관 조성, 글로벌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 등의 추진전략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2) 충청북도 - 첨단산업 및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융합 중심, 충북 RISE

충청북도는 RISE기본계획에 4개 프로젝트와 9개 단위과제, 4개 성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충북은 지역 현안으로 인구구조 불균형과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다문화·외국인 가구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수요 증가, 의료여건 개선을 들고 있다.

이러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과 대학의 Cheer-Up 프로젝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주목할 만하다. 첫째, 충북 생활연구소 고도화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 둘째, 지역 소멸 대응 의학교육 여건 개선이다. 지자체·지역 주민·대학·기업이 문제 정의, 기획 단계부터 기술·정책·제품/서비스 개발과 실제 적용 방안까지 협력하는 지역 맞춤형 문제 해결 구상으로, 특히 과학기술, 인문·사회, 법·제도 기반 문제해결형 융합 교육을 통해 수요자의 현안을 해결하는 대학-지자체 간 협업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생활연구소 운영은 연구개발과 후속 적용이라는 구조를 기반으로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이다.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요발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특히 미래 지역 정주 대상들인 학생들의 관점에서 지역 현안을 정의하고 해결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충북은 생활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대학-지자체 간 소통체계와 문제관리 및 해결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향후 참여 주체의 다양화와 체계의 지속성을 고려한다면 지역문제를 지역 주민이 발굴하고 지역 기업과 해결하는 충북 모델은 지역문제 해결에 있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3) 광주광역시 - 지역-대학 함께 UP! 교육혁신 기회도시 광주

광주광역시는 RISE 5개 프로젝트와 16개 단위과제를 수립하였다. 지역사회 현안으로는 인구 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에 따른 산업인력 부족, 지역성장 한계, 대학 존폐위기 등이 있다. 광주와 대학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GROW UP 프로젝트를 구상하였다. 프로젝트는 도심 캠퍼스 리빙랩 운영, 광주 통합돌봄 허브대학 운영, 광주 문화예술·관광도시 활성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심 캠퍼스 리빙랩 운영은 지역 주민과 청년의 아이디어가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학-지역주민-기업-자치구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통합돌봄 허브대학은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대학에서 전담인력을 양성하는 모델로 청년뿐 아니라 평생교육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의 교육-채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는 대학 간 집단지성과 시민참여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 및 공동 성장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발굴과 정책 반영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도모하고 있다. 지역의 주요 현안(고령화, 인구감소, 보건복지, 기후변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혁신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특히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 관광도시 활성화를 위해 청년 대상의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문화예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의 문화적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청년세대 대상 지역 정주 매력도를 제고시키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광주 RISE 기본계획에서 위협 요인으로 지적한 지역 성장의 한계를 지역의 문화 확산을 통해 넘어서고자 하는 시도로 읽힌다.

4) 강원특별자치도 - 대학-지역이 함께 만드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산·학·연 혁신 동력 「대학도시」 생태계 실현이라는 목표로 5개 프로젝트와 13개 단위과제를 제시하였고, 이중 대학 주도형 지역 현안 프로젝트에서는 지역 위기 대응 공동연구소 G-Lab 구축, 외국인 유학생 시티즌(CITIZEN) 프로젝트를 구상하였다. 지역 현안 발굴 및 해결 협업 플랫폼 구축과 대학의 지역 내 지역 현안 과제 수행을 통한 지역위기 극복 선도, 대학과 지역 주민의 참여 유도를 통한 공동체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원은 지역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대학, 지자체, 지역 주민 등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G-Lab 플랫폼 운영으로 기후변화, 환경, 지역경제, 인구감소, 고령화, 접경 및 폐광지역, 해양 등 지역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문제발굴 및 선정-의제화-의제 실행-성과공유 확산이라는 운영 모델을 중심으로 지역 출연연과의 공동연구, 주민참여, 지역 적용이라는 흐름을 안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은 지역이 당면한 지역 고유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공공성과 공익성 증대를 위한 지역-대학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전북특별자치도 - 함께 성장! 함께 성공! 모두가 행복한 전북

전북특별자치도는 RISE를 위해 4대 프로젝트와 12+2대 단위과제를 수립하였다. 4대 프로젝트 중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동행협력 지역발전(JB-TEAM) 프로젝트는 지역 현안 리빙랩 활성화, 로코노미(Locomony: Local+Economy) 거점 조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북은 공공·민간·시민·협력형 지역혁신 참여형 리빙랩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학이 지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맡음으로써 지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로컬 콘텐츠 브랜딩을 통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로코노미

거점 조성은 고령화 등 지역문제 해결과 청년층의 정주 매력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로컬 콘텐츠 발굴 및 적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로코노미 거점 조성 등은 청년층의 다양한 의견을 기반으로 외지인이 유입되고, 지역의 특성을 청년의 관점에서 재발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6)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과 대학이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글로벌 K-교육·연구 런케이션(Learn+Vacation) 도시 조성을 목표로 5개 프로젝트와 8개 단위과제를 수립하였다. 지역사회를 위한 혁신 과제로는 대학이 이끄는 사회혁신 및 미래 변화 대응 경쟁력 강화사업과 지역 미래 의료·농업 혁신 지원사업이 있다. 제주는 대학이 교육과 연구라는 전통적 역할을 넘어,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를 기반으로 커뮤니티 리빙랩 운영 등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 간 상생 모델을 구축하여 대학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도내 지역 간 격차, 원주민-이주민 갈등, 생활 여건 개선, 기후 위기, 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 환경 등 지역을 넘어 국가적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도내 문제 해결을 국가의 보편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으로 보고, 협력 네트워크 구축-숙의형 프로세스 운영-연구혁신-지역 적용으로 공동체성 강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 정주환경 개선을 지향하고 있다.

7) 서울특별시 - 글로벌 미래혁신 성장도시 서울

서울은 RISE 운영을 위해 5개 프로젝트와 12개 단위과제를 수립하였다. 서울은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첫째, 대학의 지역문제 ‘해결사’ 역할 및 사회적 책임 확대와 둘째, 개방, 공유, 협력을 기치로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 완화 기여 마지막으로 초·중등 교육과 연계한 저출생 등 지역문제 해결 선도를 제시하였다. 지역 현안 해결 및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지역 동행 선도모델 확립과 협력 범위 확대, 참여 주체 간 협력 및 소통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대학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와 대학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해 대학의 문제 해결 역량과 사회 공헌 역할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서울은 수도로서 지역 고유의 문제보다는 보편적인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균형발전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와 협력을 중요시하며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 모델을 기반으로 사회 공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8) 경상북도 - K-대학의 대학 대전환을 통한 아이디어 산업 활성화

경상북도 RISE 추진계획은 4대 프로젝트 17개 단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K-LEARNing 프로젝트는 대학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와 지역 현안 해결, 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 수행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경북은 대학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역할 증대를 배경으로,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개방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소외계층 문화 활동 지원, 취약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대학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활성화 등 다양한 역할과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로컬이슈에 대해서는 기초지자체-대학 간 공동 지역 현안 해결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북은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역할 확대를 표명하며 대학이 지역 혁신 주체의 역할을 넘어 지역의 지속을 위한 공동의 협력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9) 경상남도 - 지역과 대학을 위한 RISE, 도약하는 경남

경상남도의 RISE 추진계획은 5대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12대 단위과제를 수립하였다. 이중 창업 및 지역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 정주 환경 조성이 담겨 있는 5번 프로젝트에서 지역문제 해결 리빙랩 선도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역 수요 기반의 지역문제 맞춤형 자율과제 운영, 대학 기초학문 분야의 사회참여 기획 및 추진 등으로, 대학과 지역의 참여형 프로그램 기획과 적용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남은 창업과 정주 환경 조성에 주목하며 지역 대학의 고유 역할인 교육 분야를 활용하여 지역과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경기도 - 지산학 협력으로 동반 성장하는 글로벌 혁신 수도, 경기도

경기도는 4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16개 단위과제를 제시하였다. 지역 현안 관련 내용으로는 지산학 상생·협력 동반성장 실현이 있으며, 경기도 지역사회 공헌 및 현안 해결이 주요 내용이다. 대학과 지역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 및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과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대학과 공공, 민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지역혁신 거버넌스 중심 현안 과제 발굴과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경기는 지역 대학의 특성화 역량과 캠퍼스 유희공간 등을 활용하여 지역 혁신성장 및 가치 창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으며, 서울과 동일하게 대학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11) 충청남도 -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담대한 개혁과 혁신으로 힘센충남 구현

충청남도의 RISE는 4대 프로젝트와 16대 단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혁신 프로젝트로는 성장과 나눔의 지역 공동체 구현을 배경으로 청년 로컬활동 생태계 조성 및 로컬 혁신 인재 양성과 기초지자체-대학 협약 기반 자율형 지역 현안 해결을 제안하였다. 충남은 이를 통해 지역 공공서비스의 불균형 해소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 탄소중립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특히 대학을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형

거점지구 캠퍼스를 구축, 지역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제공 및 사회서비스 공간 운영, 문화소외지역 주민 및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 보건의로 서비스 개선 등 기존 정부나 지자체에서 담당하였던 공적 역할에서 지역 대학의 참여가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자율형 지역 현안 해결은 기초지자체와 대학 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 수행으로, 기초지자체의 고유 현안 해결에 있어 대학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충남은 대학의 역할을 기초지자체의 기존 역할에까지 확장하며 기초지자체의 고유 역할을 대학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해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2) 울산광역시 - 대학과 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미래산업 중심도시로서의 새로운 도약

울산광역시의 RISE 기본계획에는 울산 RISE체계 구축을 위한 3대 쟁점 사항 중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보면, 지역 내 발생하는 현안을 전문성과 유효자원을 보유한 대학을 중심으로 지·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결함으로써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지역민의 생활과 안전, 복지와 연관성이 높은 현안에 대해 과제를 기획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분석한 지역현안으로는 복합재난 대응방안 필요, 보건·의료 지방인재 부족, 시민 복지요구 증가 등이 있다.

이 같은 쟁점을 배경으로 수립된 울산 RISE의 비전으로는 ‘대학과 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미래산업 중심도시로서의 새로운 도약’이다. 기본계획 내 4대 프로젝트, 13개 단위과제를 수립하였으며, 지역사회 관련 과제로는 지역 현안 과제 해결형(LAB) 협력체계 구축, 지역과 문화가 함께하는 매력 있는 풀썸도시 조성이 있다. 울산은 지역 대학의 사회적 공헌도 제고 필요와 지역과 대학의 공동목표 해결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를 목표로, 대학 및 학생 중심 프로젝트 운영과 대학 특화 분야 사회공헌활동 운영을 통한 지역 현안 과제 도출과 해결 프로젝트 추진 모델을 구상하였다. 또한, 산업도시를 넘어 문화도시로의 브랜딩을 위해 도시공간 재생 프로젝트와 문화 콘텐츠 개발을 기획하는 등 대학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제시하였다.

13) 부산광역시 - 2030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NEW WAVE를 만드는 부산형 RISE

부산광역시는 RISE기본계획 4대 프로젝트와 12개 단위과제를 설정하였다. 이중 지역 가치 확산을 위한 Social-Wave 프로젝트에는 사회문제 해결형 리빙랩 프로젝트 운영을 세부 과제로 수립하였다. 인문사회 예술과 기술 기반 리빙랩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도시 활력 생태계 구축, 지역문화 활력 프로그램 추진과 대학의 사회 공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 역시 대학이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내용을 구상하고 있으며, 대학 자원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공동연구, 정책제언, 개선과제 도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4) 세종특별자치시 - 창조와 도전의 고등교육 혁신 한누리캠퍼스 구축

세종특별자치시의 RISE는 4대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5개 단위과제를 수립하였다. 지역 현안 관련 프로젝트로는 대학과 함께하는 지역혁신 선도로, 세부 과제로는 한글문화수도 조성 및 MICE산업 육성이 있다. 이 사업은 기관-대학-주민-전문가가 다양한 관점에서 지역 현안을 진단하고 지역문제를 구성원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여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도시 조성 기간이 짧은 배경으로 인하여 문화·예술·관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브랜딩 및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식 하에서 이러한 사업을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종시를 대표하는 한글, 박물관 등을 도시 상징으로 브랜딩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하여 정주를 위한 도시 조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의 혁신 주체가 참여하는 리빙랩 운영 등을 통해 도시 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15) 대구광역시 - 미래 50년 변영 대구, 세계로 비상하는 대학

대구광역시 RISE는 4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17개 단위과제를 제시하였다. 지역사회 혁신을 위해 동성로 르네상스 도심 캠퍼스타운 조성, 청년 연구자 직·주·락 빌리지 조성, 청년 친화형 지역사회 문화 조성을 구상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침체된 도시에 청년문화 부흥, 대학 중심 도심 생태계 조성, 청년 정주타운 조성, 지역 밀착형 사회문제 해결 지원 등을 지역혁신 과제로 추진하고자 제안하고 있다. 대구는 도시 공간 브랜딩과 청년 정주,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 대학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정주 여건의 향상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특이할 만 하다고 할 수 있다.

16) 대전광역시 - 경제·과학도시 대전 구현을 위한 교육혁신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대전광역시 RISE는 5대 프로젝트 12개 단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 현안 해결과 관련하여 RISE 촉진형 지역 현안 해결 프로젝트를 수립하였고, 지역 현안 해결 및 꿀잼 도시 조성 과제를 제안하였다. 주요 추진내용은 지역-대학 동반 리빙랩 운영, 대학-지역 상생형 원도심 활성화, 지역 연계 플랫폼 구축·운영, 대학 중심 문화·예술 꿀잼 콘텐츠 개발 및 지역 문화축제 확산이 있다. 대전은 지역사회 현안 해결 외에도 대학 청년들을 위한 RISE 플랫폼 구축, 대학 중심 지역 문화 콘텐츠 개발과 지역 문화축제 구상 및 추진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학과 지역 주민, 청년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사업을 기획하였다.

17) 인천광역시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으로 세계 초일류도시 구현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의 RISE는 4대 프로젝트 및 14개 단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문제 해결형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제물포 르네상스 연계 원도심 가치 재창조를 지역 현안 관련 과제로 수립하였다. 이는 인천의 원도심인 제물포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도시역량 강화 및 신기능 부여를 통해 낙후된 도심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제시되었다. 또한 인천의 기간산업인 제조업 노후산단 인프라 개선 및 재구조화를 통해 청년들이 유입되는 혁신 공간으로 전환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친화형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년 대상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프로젝트 운영, 리빙랩 기반 아이디어 발굴 및 솔루션 개발, 산단 개조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청년층의 유입과 새로운 콘텐츠 기반 일자리를 만들어내어 매력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도서 지역 대상 과제인 인천 보물섬 특성화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통해 해양산업 개발과 인구소멸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다양한 해양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1] 전국 RISE 추진지역 기본계획 내 지역현안 관련 내용

구분	지역	주요내용
지역현안 해결관련 분야	전라남도	시·군 주민 참여 리빙랩 기반 지역사회 문제 해결 지원
	충청북도	충북 생활연구소 고도화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
	광주광역시	지역사회 GROW UP 프로젝트: 도심 캠퍼스 리빙랩 운영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위기대응 공동연구소 G-Lab 구축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현안 리빙랩 활성화 및 로코노미 거점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이 이끄는 사회혁신 및 미래변화 대응 경쟁력 강화사업
	서울특별시	대학의 지역문제 '해결사'역할 및 사회적 책임 확대
	경상북도	대학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경상남도	지역문제 해결 리빙랩 선도대학 육성
	경기도	지산학 상생·협력 동반성장 실현
	충청남도	기초지자체-대학 협약 기반 자율형 지역현안 해결
	울산광역시	지역 현안 과제 해결형(LAB) 협력체계 구축
	부산광역시	사회문제 해결형 리빙랩 프로젝트 운영
	세종특별자치시	대학과 함께하는 지역혁신 선도
	대구광역시	동성로 도심 캠퍼스타운 및 직·주·락 빌리지 조성
	대전광역시	RISE 촉진형 지역현안 해결 프로젝트
	인천광역시	제물포 르네상스 연계 원도심 가치 재창조

자료(출처): 전국 17개 지역 RISE 기본계획

3. 검토결과

지역혁신체계를 구성하는 지역과 대학 간의 네트워크 변화는 대학에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의 사회적 책무 역시 지역사회 봉사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의 가치와 발전 지속을 위한 책임을 분담하는 지역 생태계의 주요 행위자로서 고도화되고 있다. 대학은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리더십을 발휘하며 지역 산업 발전 일변도의 지역 정책 부응이 아닌 지역사회의 지속과 삶의 질 제고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동시에 산업적 측면을 넘어 기존에는 지역이 담당했던 교육, 복지, 지역사회 현안 해결과 참여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 지역사회의 성장을 확산시키는 역할도 부여받고 있다.

지역 RISE 기본계획 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의 대응책의 배경을 살펴보면, 지역이 가지는 고유한 문제도 있지만 수도권 집중, 인구 유출과 고령화, 그에 수반되는 지역 산업 및 인프라 낙후 등 공통의 지역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RISE는 그간 중앙에서 해결하고자 했던 이러한 지역의 문제들을 지역과 대학이 같이 검토하여 솔루션을 개발하고 지역에 확산시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RISE를 추진하는 17개 지자체는 정부의 RISE 4대 성과 목표를 기반으로 대학과 함께 지역 산업 및 경제, 대학 역량 등을 분석하여 지역별 RISE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1을 보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대학의 ‘참여’를 중심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기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두드러지는 것이 리빙랩(Living Lab)이다. 리빙랩은 시민과 공공, 산학연 관계자 등 지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자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솔루션을 개발하여 적용하며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해결 방법론을 담은 플랫폼이다. 리빙랩은 지역 고유의 혹은 보편적 문제 해결에 있어 지역 구성원들의 역할을 제고하고 지역만의 발전 방안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이수연 2022, 298).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문제 해결 방법론인 리빙랩의 활용을 기반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동의 문제를 상호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모델은 새로운 방법론은 아니나, 그 중심에 다양한 지적 자원과 인프라, 네트워크를 보유한 대학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은 지역과 대학의 새로운 공생 과정에서 대학이 가지는 새로운 역할을 재정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대학의 자원과 지식을 활용하는 지역-대학의 파트너십은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 지향과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대학이 지향해야 할 사회 공헌의 한 축이다(김창환 2020, 40). 이는 궁극적으로는 사회 공헌의 면모를 가지고 지니고 있으나,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일본 돗토리현 사례처럼, 지역민들을 위한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과정에 대학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은 지역에 대한 이해와 교육과정에서의 실무·현장 실습 경험을 체득하게 되는 것이다. 대학이 지역 연계 교육활동을 강조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할수록

학생은 지역사회 문제, 지역의 산업, 지역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이러한 지적 기반은 지역 정주를 포함한 지역 참여의 출발점이 된다. 지역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역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지역 참여로 나아가는 첫 단계이며, 지역 참여의 교육환경은 지역사회에 대한 정서적 유대와 공동체적 책임감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다(황수정 외 2025, 37).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수립된 17개 지역의 제안들은 지역 현안 해결뿐 아니라 이를 통한 지역과 수도권 간 종속-비종속 관계의 경제 구조 개선, 새로운 지역 산업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함으로써 지역사회 가치 제고와 대학 역할의 확대를 넘어서고자 한다. 지역 현안 해결, 지역 경제 다변화, 지역사회 지속 가능성 강화를 통해 구조적으로 기울어진 문제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 역시 지역 내 부족한 점을 끊임없이 고민함으로써 대학이 지역의 주요 행위자로서 인재 교육과 기술 개발을 넘어 지역과의 공동 발전과 지속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면모는 지역 RISE계획에서 드러나는데, 광주광역시의 문화예술·관광도시 활성화, 전북특별자치도의 로코노미 거점 조성, 제주특별자치도의 런케이션 도시 조성, 울산광역시 및 대전광역시의 꿀잼도시 조성, 세종특별자치시의 한글문화수도 조성 등의 기획은 지역문제 해결을 넘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콘텐츠 발굴과 관련 산업 진흥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정주 매력도를 결정하는 것은 지역 산업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지역사회와 주거 환경 인프라의 구축 여부이다. 각 지역은 대학과 협업하여 현안 해결을 모색함으로써 원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세부 사업들을 기획하고, 한편으로는 지역사회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신규 유입을 통한 정주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학들이 보유한 특·장점을 활용하여 계획의 운영, 방안 모색, 적용과 실증, 확산에 대학과 지역, 지역사회가 동참하는 것이다.

결국, RISE를 기반으로 한 지역과 대학의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 해결 모델의 성공 여부는 대학과 지역 주체들의 참여이다. 참여자들은 대학을 중심으로 학습과 공유, 탐색과 협력 등 지속적인 활동 과정을 통해 상호의존성을 체득하고 문제해결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공통의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는 단절되어 있던 지역사회 내 참여자 간 연결을 가능하게 하며, 참여자들의 통합을 촉진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RISE를 통한 지역 현안 해결 모델은 그 자체를 넘어, 지역사회의 통합과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기반이 된다. 참여자들은 대학과 함께 지역의 능동적 행위자로서 지역의 가치와 규범을 재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가치와 규범은 지역의 지속과 참여자 간 연대를 유지하는 무형의 형태로 지역에 안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연구자가 RISE사업에 참여한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일부 나타난다. 연구자는 2025년 10월 ~11월 간 RISE사업 수행대학 2개교의 RISE사업에 참여하는 재학생 15인을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질의 내용은 RISE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을 희망하는 대학 사업 및 지역에 대한 관심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인터뷰 결과, 학생들은 출신 지역을 막론하고 자신들이 머무르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나, 대학이나 지역에서 지역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은 의견으로 볼 때, 지역 학생들의 지역 정체성 형성을 위해 대학에서 지역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융합 프로그램이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다음 의견으로 학생들은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공공과 나누고 지역에 전달하고 싶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 부분은 특히 인구소멸 위기 지역이나 도서 지역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대한 대학의 RISE사업 운영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학생들이 지식과 경험을 지역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사회를 이해함으로써 RISE체계의 비전인 지역 정주와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가치 확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과 지역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 지식 공유와 참여 제고를 위한 수요를 발굴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III. 결론

고착화된 지역문제 해결에 있어 지역의 주요 행위자인 대학이 지역의 현안 해결과 지역의 지속을 위해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다. 대학이 참여자 또는 관찰자 입장에서 벗어나, 지역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다양한 내·외부의 위협 요인에서 파생되는 지역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대학의 참여는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과 지역 가치 제고와 연계되며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은 특히 RISE 체계를 통해 지역 현안 발굴과 해결에 교내 전문적인 학과 수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교내를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야 한다. 대학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들에 교육받은 우수한 학생들이 참여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제시할 수 있고, 학생 스스로는 교육 내용의 현장 적용과 실습 등을 통해 개인의 전문성 제고와 공동체 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다. 학생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시도할 수 있도록 대학은 내·외부의 기반을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졸업 후 지역 정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의 사전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은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지역-대학 등 다양한 참여자 간 연대를 모색하며 지역사회의 성장 유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탐색하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지역과 대학의 공생을 위한 지역 정체성 강화와 공통의 문제해결을 통한 지역 통합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영미. 2021.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문사회21 44: 3063-3074.
- 김창환. 2020.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을 강화하는 기제로써 대학의 사회적 책임(USR) 연구」. 고등교육 1: 25-54.
- 김현영. 2025. 「지학협력과 RISE: 지역혁신을 위한 고등교육의 역할」. 평화들 PEACES 4(1): 53-81.
- 배진형·안정선. 2024.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방법 모색을 위한 탐색적 연구」. 인문사회과학 연구 12: 295-314.
- 이수연. 2022. 「리빙랩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 인천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연구 22: 297-329.
- 문경희. 2021. 「경상남도의 지역혁신과 지자체-대학 협력사업 계획과정에서의 정치동학」. 비교민주주의연구 17(1): 63-101.
- 김은정·허원빈·양기용·오영삼·김지수. 2020.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콜렉티브 임팩트 접근에서 대학의 역할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2(1): 1-22.
- 이슬기. 2023. 「대학 연구센터의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연구: 지역대학의 선도연구센터와 지역혁신센터의 성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7(3): 361-390.
- 황수정·배상훈·이예원. 2025. 「대학의 지역참여 교육환경이 학생의 지역몰입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 이해와 지역참여 공감의 매개효과」. 교육행정학연구 43(5): 35-61.
- 송혜선. 2025. 「일본대학의 지역활성화 인재육성사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고등직업교육연구소.
- 대한민국 고등교육법 제28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A0%EB%93%B1%EA%B5%90%EC%9C%A1%EB%B2%95> (검색일: 2025년 8월 28일)
-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안).” 관계부처 합동.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6088 (검색일: 2025년 10월 13일)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본계획(인천, 울산, 서울, 경기, 대전, 충남, 충북, 경북, 경남, 부산, 전남, 전북, 광주, 제주, 세종, 강원, 대구).” <https://www.moe.go.kr/boardCnts/listRenew.do?type=default&page=3&m=0316&renew=72775&s=moe&boardID=72775> (검색일: 2025년 10월 13일)